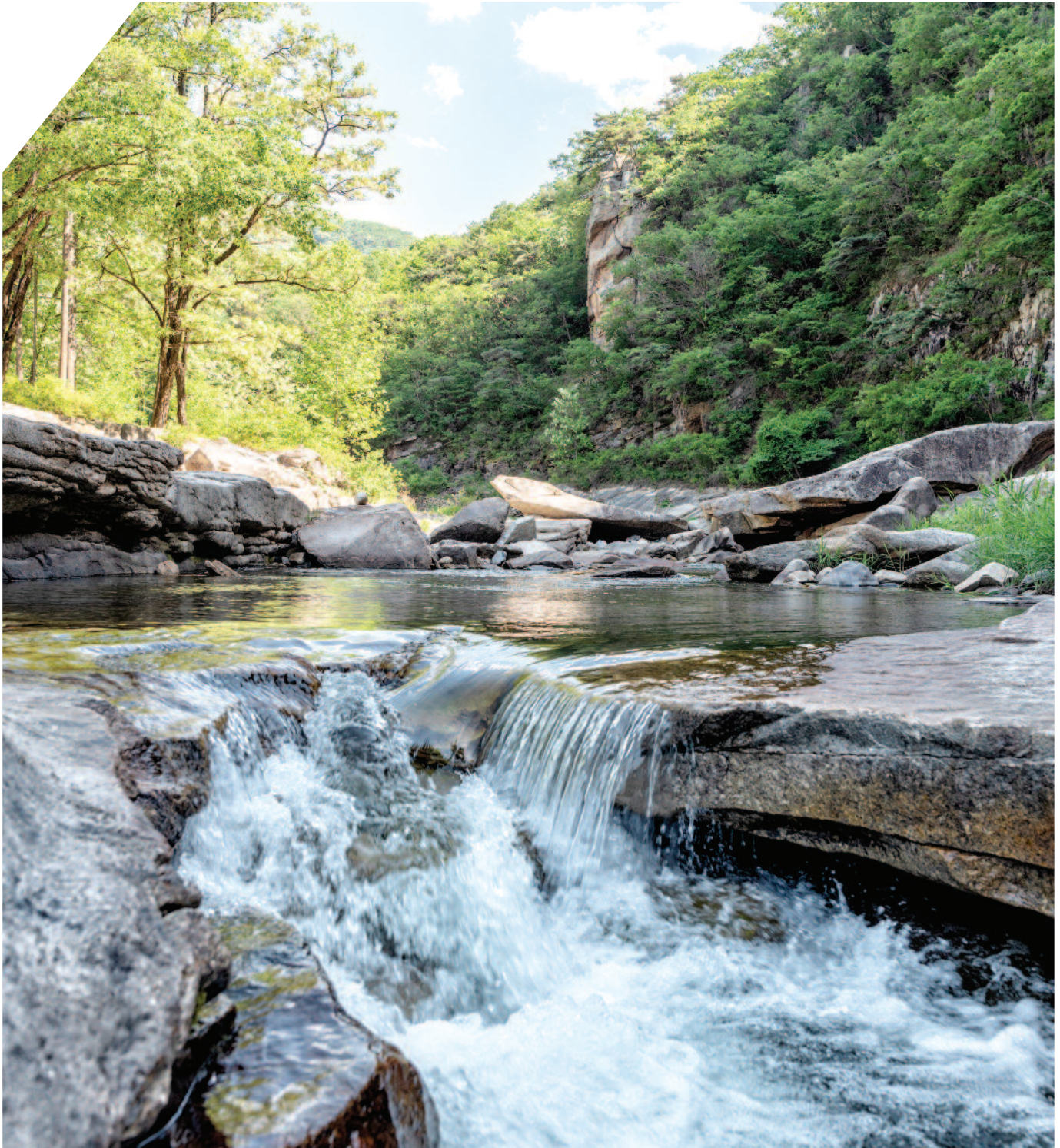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의정

2020 | 통권 제 176호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CONTENTS

08

제293회 임시회

02

특집·신임 의장단에게 듣는다

04

- 곽도영 도의장
- 박효동 부의장, 신도현 부의장
- 상임위원장

48

핫이슈

-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

20

50

도의원의 하루

22

- 권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6)
-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
- 주대하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
- 신영재 의원(미래통합당·홍천1)
-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태백2)
- 최재연 의원(미래통합당·철원1)

상임위원회 활동

34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5분 자유발언

40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모든 것

43

-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돋보기

44

- 조례 Q&A

의정 칼럼

47

- 김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4)

뉴스 포커스

48

의원들과 함께 방방곡곡 강원여행

52

- 정선 아라리촌과 정암사 수마노탐
- 철원 직탕폭포와 삼부연폭포

연간회기 기본일정

56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정소식지인 '강원의정'에서는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실겠습니다.

강원 의정

GANGWON·PROVINCIAL·COUNCIL·JOURNAL

2020 Vol.176

통권 176호 | 2020년

51



51



52



55



발행일 | 2020년 7월 30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발행인 |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
편집인 |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고영선
기 획 |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박유식
문 의 | Tel. 033)249-5169 / Fax. 033)249-5023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원 구성 완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통해 도정 주요사업 점검

강원도의회는 7월 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까지 13일간의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0대 하반기 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10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 2020년 하반기 도와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1차 본회의에서는 제10대 하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도의장에 곽도영(더불어민주당·원주5) 의원을, 부의장에는 각각 박효동(더불어민주당·고성) 의원과 신도현(미래통합당·홍천2) 의원을 선출하였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

위원장에 김진석(더불어민주당·평창2)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김규호(더불어민주당·양구) 의원, 사회문화위원장에 장덕수(더불어민주당·정선1) 의원, 농림수산위원장에 김정중(더불어민주당·양양)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에 김형원(더불어민주당·동해2) 의원, 교육위원장에 최재연(미래

통합당·철원1)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도의장으로 선출된 곽도영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당내 경선을 아름답게 치러주신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후반기 2년을 산과 같이 위엄있게, 바다같이 겸손하게, 공기처럼 깨끗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업 규제 완화,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 등 강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연 의원(미래통합당·철원1)은 철원의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였다. 한창수 의원(미래통합당·횡성1)은 군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국방부의 보상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은 6.25 전쟁 3대 전승 중 하나인 춘천전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기획사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은 강원도 아동보호체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어 이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를 도내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조례 10건 의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다.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

사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규정한 조례로 지난 171회기 때 제정되었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수 양산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공백과 관련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주목받았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해 사회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교육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다양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수업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도에서는 모든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상임위별 연찬회 진행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업무보고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는 부실하거나 미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도민 중심의 사업 진행을 주문하였다.

한편 회기 후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원 구성이 새로이 된 만큼 제10대 도의회 후반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진행하였다. 연찬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현안과 관련한 현지를 시찰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강원도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가 개원했다. 도의회는 대화와 숙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객도영 도의장을 중심으로 한 신임 의장단과 함께 하반기 의회를 힘차게 열어젖혔다. 제10대 후반기 도의회는 앞으로 2년 동안 도민을 섬기며 도민을 위해 일하면서 도민과 더 가까운 의정을 펼칠 것이다.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겠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슬로건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입니다. 하반기 도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더욱 더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한 번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한 발 더 다가와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꾸짖어 주십시오. 잘하는 일에는 한 번 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도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모든 의견과 충고와 관심은 강원도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자 원동력입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전반기에 이룬 성과들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어가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그간 정부 정책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발전하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에 적극 앞장서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충고와 진심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도의회는 도민의 성원을 가슴에 담고 도민의 요구를 머리에 새긴 채 뜨겁지만 냉철하게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힘 다해 뛰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객도영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박효동 부의장

소통과 화합의 정치문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도정을 견제, 감시하며 도민의 제과 요구를 성실히 듣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의회 내부의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의장의 역할은 도의장과 의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목소리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장을 보좌하고 대행하면서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강원도 소외론을 극복하고
강원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춘천 방사광가속기 유치 탈락 등 주요한 국가 정책에서 잇따라 소외돼 왔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이 많고 인구는 적으며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도의 특수 상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의회를 가깝게 찾으며 의원들과 더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원도를 살리는 길은 도정과 의정에 달려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하며 지원하는 의정'을 이끌겠습니다. 강원도민이 잘 살게 하는 의정의 길에 앞장서서 달리겠습니다. 소통하고 믿음 가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신도현 부의장

공직 생활 40년,
재선 도의원 경험 살려 협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홍천군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도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가슴으로 부딪혔습니다. 공직 사회의 속성을 알고 어떻게 타협해야 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끝에 7년째 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력의 정신은 오랜 공직생활 경험 덕분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협치의 마인드로 소통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속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소수 정당 소속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경청해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면서 여러 의견을 고르게 수용하겠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도의회, 대화하는 도의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위기의 강원을 살리기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뒤따라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은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도의회가 적극 나서 무너져가는 강원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앞으로 부의장으로서 도의장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하면서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평창2)



상임위원회 추가 신설해 의회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현재 6개로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 신설해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체계는, 미래형 의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강원도의 조직 구성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지나치게 많아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와 연구, 심의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도 합니다. 소관 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서로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업무의 능률을 높여 의회의 권한인 견제와 감시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해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한편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어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회에는 지역과 소속 정당마다 다른 의견을 가진 46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10명의 의회 운영위원의 의견만 듣다보면 소수의 의견에 치우칠 수 있고 광범위한 시각과 다양한 견해를 갖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의원들의 고견을 골고루 청취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지역별로 순회하며 만남을 갖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역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소통하는 의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소관 업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또 의회 보조 기관이나 의원 연구회를 운영하는 기준을 정하며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5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각 위원회별로 1명씩 참여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속 위원



김진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평창2)



박병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원주1)



김준섭 위원
(더불어민주당·속초2)



신명순 위원
(더불어민주당·영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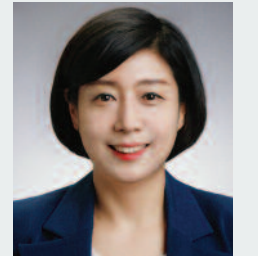
심영미 위원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안미모 위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상호 위원
(미래통합당·태백1)



정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조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원주7)



한창수 위원
(미래통합당·횡성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구)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힘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으며 그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선두에 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어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을 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의 의견이 도정에 실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는 의회는 죽은 의회입니다. 기획행정위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 진부하고 편협한 시각은 지적하고, 계획만 있고 도민 중심의 미래는 없는 억지성 정책 추진은 막겠습니다.

강원도정의 전략과 비전, 목표가 실현되도록 이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들의 비전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기획 및 조정하여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을 운영하며 소통과 공감의 행정 지원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강원도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민의 안전을 구현하며 통일시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도정 목표가 효율적으로 실현되어 도민이 편안하고 잘 사는 강원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규 호**

소관 업무

강원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접경지역을 포함해 도 전체가 경쟁력을 갖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견인한다. 도 행정이 생산성있게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내 행정에 대한 감사가 객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소방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관장하면서 재난재해가 잦은 도의 안전 대책을 파악하고 도 특성에 맞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실태를 감독하며 도내 재산 운용을 감시하며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소속 위원



김규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구)



안미모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김경식 위원
(더불어민주당·영월1)



박윤미 위원
(더불어민주당·원주3)



박인균 위원
(더불어민주당·강릉2)



심상화 위원
(미래통합당·동해1)



윤석훈 위원
(더불어민주당·평창1)



한창수 위원
(미래통합당·횡성1)



허소영 위원
(더불어민주당·춘천5)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정선1)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뛰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강원도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 지역의 의료 및 방역 체계가 열악함이 확인되었고 최악의 불경기로 인한 고용 절벽을 실감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아 청년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열악한 복지체계를 개선·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기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중앙정부의 권고로 시작된 대회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관계부처에서는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에 미온적입니다. 앞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지원하도록 건언하겠습니다.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 활용과 함께 관광 및 스포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집행부와 모색하여 올림픽 시설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열린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닫혀진 소통의 장벽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순간 발전의 동력은 사라지고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통하고 토론하는 겸허한 자세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문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장 덕 수**

소관 업무

여성, 청소년, 복지, 보건, 문화 등 도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화하고 정책이 현실성있게 구현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또한 취약 계층을 위해 다방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도내 문화 기반 시설의 구축,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위생 환경 개선 등을 감시하고 정책을 건언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청소년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소속 위원



장덕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정선1)



정수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권순성 위원
(더불어민주당·원주6)



김병석 위원
(더불어민주당·원주4)



김수철 위원
(더불어민주당·화천)



김진석 위원
(더불어민주당·평창2)



원태경 위원
(더불어민주당·춘천3)



주대하 위원
(더불어민주당·속초1)



최중희 위원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양)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의 활로 개척을 돕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판로를 잃었습니다. 대규모 납품이 가능한 학교 급식이 중단, 축소된 것은 물론 해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농가의 생산이 소득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찾아주기 위해 농림수산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가 원활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18개 시군의 농·어업 특성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견인하겠습니다.

홍천과 평창은 고랭지배추, 정선과 양구는 사과, 양양은 버섯, 고성은 방어, 속초는 오징어처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 정책을 펼치도록 견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허가를 얻은 대서양 연어 양식이 양양 등 동해안 일대에서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강원도권 해역에서의 타 시도 어업인의 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도내 어업인들의 구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처럼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도내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림의 창의적 개발을 피해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보호 중심의 산림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림 경영도 변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만이 아닌 개간을 통해 색다르게 이용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가 나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득 창출을 이끌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소관 업무

강원도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축산업, 어업, 임업과 함께 가공식품 관련 산업 등을 관장한다. 도내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농민과 어민의 안정적 삶을 도모하고 농어업을 생업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어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환경 관련 분야를 다루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소속 위원



김정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양)



신명순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영월2)



박병구 위원
(더불어민주당·원주1)



박효동 위원
(더불어민주당·고성)



신도현 위원
(미래통합당·홍천2)



심영섭 위원
(무소속·강릉1)



위호진 위원
(더불어민주당·강릉4)



한금석 위원
(더불어민주당·철원2)



함중국 위원
(미래통합당·횡성2)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동해2)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돕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제는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랜 불경기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끝이 없을 것 같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 해도 제조업이 취약하고 관광·유통과 농림수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도민들로서는 살림살이가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도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침체된 도 경제를 활력으로 이끌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도와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현안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겠습니다.

횡성 중심의 이모빌리티 산업, 삼척 중심의 수소산업 등 시군과 협력하여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내년 7월, 레고랜드가 차질없이 개장되도록 도정을 견인하겠습니다. 레고랜드는 그간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지적을 받아왔으나 지금으로서는 돌이키기 어려울뿐더러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타당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역사 유적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적하는 한편 원활하게 개장될 수 있도록 도정을 견인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의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도내 접경지역은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공동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5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개발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과단성있게 중앙정부에 도와 도민의 어려움을 호소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가 직접 움직이며 도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원**

소관 업무

강원도의 경제와 과학 기술, 건설 분야 전반을 감독하며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한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강원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안을 제안하며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개선, 교통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상공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소속 위원



김형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동해2)



조성호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원주7)



김상용 위원
(더불어민주당·삼척1)



나일주 위원
(더불어민주당·정선2)



신영재 위원
(미래통합당·홍천1)



윤지영 위원
(더불어민주당·춘천1)



이병헌 위원
(더불어민주당·원주2)



이상호 위원
(미래통합당·태백1)



조형연 위원
(더불어민주당·인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
(미래통합당·철원1)



강원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강원교육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비롯된 원격수업 체제와 미래형 블렌디드 수업, 개인별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와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의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미래혁신교육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융합과 소통의 '미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공간 혁신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교육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학교 교육 구성원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나 다양한 직종별 처우 조건 면에서 아직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 현장을 방문해 보면 휴식공간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불편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구성원들의 근무 조건을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섬세하게 지원해 쾌적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의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화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이번 회기 조례의 통과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정의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교육위원회가 공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재연**

소관 업무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활동한다. 강원도 교육청의 사업 전반을 감독하며 교육과 관련된 각종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한다. 교육선진화를 이끄는 한편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별 교육 정책이 현실감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맞춤형 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 현황을 감시한다.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관리, 학생과 지역 주민에 바탕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지는지 감독하며 강원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소속 위원



최재연 위원장
(미래통합당·철원1)



김준섭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속초2)



김혁동 위원
(더불어민주당·태백2)



남상규 위원
(더불어민주당·춘천4)



박상수 위원
(미래통합당·삼척2)



반태연 위원
(더불어민주당·강릉3)



심영미 위원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이종주 위원
(더불어민주당·춘천2)



정유선 위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 다른 시도 어선의 도내 해역 조업 규제하라!

강원도의회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도내 어선이 아닌 서·남해 소속의 근해자망어선이 도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서·남해 소속 근해자망 어선은 동해안 일원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하며 도내 어업인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특히 서·남해 소속의 근해자망 어선은 우리나라 연근해 모든 구역에서 어린 오징어까지 마구잡이로 씹쓸이해 오징어 자원 고갈은 물론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올 5월부터 동해안 지역의 난류로 인한 수온 변화로 오징어군이 북상 회유함에 따라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오징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나 서·남해 소속 근해자망 어선의 씹쓸이 조업으로 또다

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강도가 높은 타 지역의 근해자망 어업의 어구 규모, 사용량 및 금지구역을 제한하고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오징어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영세 어업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현행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는 외지 근해자망 어선의 강원도 해역에서의 오징어조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타 지역 어업인들과의 조업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다른 지역 어선의 도내 해역 조업을 규제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신되었다.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1950년대 초 약 30만 톤 수준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이 어선 세력의 증대와 더불어 어업의 근대화에 따라 생산량이 급속히 신장되어 1970년대에 100만 톤을 넘게 되어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어업 자원 감소와 연안환경 악화로 어업생산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하여 1986년대 150여 만 톤 수준의 최고점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6년 이후 100만 톤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어업 노동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업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은 지역별·해역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어황 변화로 수산자원 감소, 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해역별 어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중국 어선 북한 수역 쌍끌이 조업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속하게 감소된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70년도 우리 강원도 오징어 어획량은 43,066톤이었으나, 2000년도 28,445톤, 2010년도 16,705톤으로 줄었으며,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대거 출어에 따른 남획으로 2015년도 7,641톤, 2018년도 4,146톤, 지난해에는 4,034톤까지 줄어들었다.

금년 5월부터 연안 수온 상승에 따른 오징어군이 북상 회유하면서 동해 중부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우리 강원도 삼척에서부터 고성군까지 연안에서 오징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년 동기 대비 어획량이 7배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침체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큰 활력과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제주도, 전남, 경남 등 타지역 근해자망 어선 27척이 우리도 연안까지 원정 진출하여 오징어 조업을 하면서 어업 분쟁에 따른 우리 어업인들과의 갈등으로 큰 마찰을 일으켰다. 현행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는 타지역 근해자망 어선의 우리 해역에서 오징어조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타 지역 어업인들과의 조업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 및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수산업법의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의 규모, 사용량 및 금지구역의 제한을

둘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근해자망어업에 의한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어업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권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원주6)

실사구시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 도울 터

30년 된 아파트에 경로당 신축, 장애인단체에는 휠체어리프트 차량과 휠체어 지원
원주 일시청소년쉼터 개소, 원주고에 구름다리, 원주초교는 교문 확장
플라스틱 저감대책, 물 부족 관리 등 환경문제에 지속적 관심

권순성 의원은 주말 새벽이면 원주새벽시장으로 향하고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를 한다. 주민들에게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간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자는 권 의원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렇게 해결한 것이 경로당 문제다. 세경2차아파트에는 경로당을 새로 설치했고 개운 경로당과 원흥3차아파트 경로당은 깨끗하게 정비했다.

개운동 덕산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이다. 지은 지 30년도 넘는 덕산아파트에는 대부분 노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경로당이 없었다. 지을 만한 공간도, 예산도 없었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예산을 확보해 얼마 전 새 경로당을 마련했다.

“통장님께서 너무 고맙다며 평생 잊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이 집중하는 부분이다. 학교나 가정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잠깐이라도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공간을 원주에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청소년쉼터가 위기청소년이 가장 많은 원주에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1년 만에 실효를 거둬 지난 7월 20일 일주일 이내에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 쉼터가 태장동에 문을 열었다. 쉼터 개소식날 권 의원은 장·단기 쉼터도 임기 내에 꼭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주고등학교에는 구름다리가 생겼다. 교실에서 급식소로 가려면 건물을 한 바퀴 돌아가야 해 아이들이 비를 맞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쉽게 갈 수 있게 했다. 야구부 실내연습장도 새로 조성했다. 개교 100년이 넘는 원주초등학교는 교문이 너무 작아 접촉 사고가 자주 났다. 놀이터가 바짝 붙어 아이들도 위험했다. 여기에는 교문을 넓히고 놀이터를 옮겨주었다. 명륜초등학교에는 실외학습장을 만들어주었다.

권 의원은 장애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주지체장애인협회에 휠체어리프트 차량과 휠체어 40대를 지원하는가 하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오갈 때 이용할



차량도 마련해주었다.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무직자를 위해 운영해오던 ‘니트족 희망 플랜 프로그램’에는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왔다.

“집에 틀어박힌 청년을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은 성과와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구제하기 위해 지속돼야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속성을 갖는 것에 관심이 많다. 환경문제도 그중 하나다. 그는 도에서 플라스틱 저감대책을 세우고 농·어촌을 비롯한 각지에서 생분해성 멀칭 필름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물 부족에 대비한 정책도 계속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강원도는 특히 물이 부족한 만큼 물 자원관리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물 자원관리팀 신설과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시설 설치를 강권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정책과 지원으로 잇는 권 의원은 지금 실사구시의 모범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김형원 의원
(더불어민주당·동해2)

SOC 구축에 집중, 동해 미래 크게 구상

전통시장과 경로당 다니며 현장의 소리 귀담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학교 시설 개선, 희망근로 예산 확대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숨통 동해항 확장 공사에 정부 투자 이어져야... 강릉-삼척 간 철도 건설도 요구

김형원 의원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번개시장과 중앙시장을 찾는다. 상인들과 만나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다. 낮에는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등에 들른다.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란 말이 있듯이 저도 주민들과 함께 천천히 멀리 갈 생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동쪽바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이다. 낮고 넓은 지붕을 높고 튼튼하게 지으면서 시장이 다 환해졌다.

묵호고에는 도서관이 새로 생겼다. 기숙사를 증·개축하고 넓은 칠판도 바꿨다. 광희고는 체육관 시설을 보수했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내 인도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또 도와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애썼다. 2019년에는 31억 원, 2020년에는 22억5,000만 원의 예산을 동해에 배정해 침체된 경제에 숨을 틔워주었다.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와 대한노인회 동해지부, 이레요양원 등에는 이동 차량을 지원했다.

동해항 3단계 공사는 요즘 동해에서 가장 큰 이슈이다. 동해항은 국제항이지만 체선율(선박입항지체율)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투입해 항구를 확장하기로 했으나 정작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30년까지 1조7,000억 원을 투입해 7개 선석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2번 선석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기로 했지만 민자는 10만톤급 1번 선석만 들어오기로 했어요. 최근 시멘트 산업계가 불황이라 나머지는 불분명한 상태죠. 이 때문에 다른 부두도 국가가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까지 된 마당에 정부를 직접 방문하며 강원도와 동해의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안인부터 옥계, 망상, 북평 지역을 포괄하던 사업계획이 옥계와 망상, 북평 일부로 축소되었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요. 주민들과 함께 빠른 추진과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삼척 간 동해선 철도가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강릉부터 고성 재진을 잇는 동해북부선이 착공을 발표했으나 그 사이를 잇는 삼척-강릉 간 철도 신설은 확정되지 않아 조속한 추진을 채근할 참이다.

블라디보스톡과 동해, 일본 사카이미나토 지역을 잇는(DBS 항로) 페리호의 운항 재개 역시 그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남북 교류와 북극해로의 진출을 위한 미래항로이기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해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큰 그림을 갖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역점을 두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동해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며 뛰는 김 의원의 발걸음이 힘차다.



주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속초1)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다

재난 때마다 주민 눈높이 맞춰 고충 해결...미시령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장애인 체육 육성, 체육 인권 신장, 교육 환경 개선, 어민 생활 환경 개선 등 앞장
속초의료원에 분만시설과 소아병동 설치, 속초·고성 등 인근 지역 산모 안심

28년 동안 체육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주대하 의원이 도의원에 나선 목적은 한 가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아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나서자고 결심했어요.” 2018년 교직에서 퇴직 후 그는 곧장 도의원에 출마했다.

당선되자마자 속초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300m에 달하는 폭우로 상가 피해가 속출했다. 주 의원은 피해를 입은 48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전에 각 100만 원씩 위로금을 받도록 힘을 썼다.

이듬해 봄에는 고성과 속초에 산불이 발생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을 살폈고,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신주에서 발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점포에 대해선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데 도와 관계기관 등을 압박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도 그의 노력이다.

교사 출신인 만큼 학교에 대한 관심은 단연 최고다. 속초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엘리트 체육 운영비를 지원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도록 했고 설악고에는 체육관과 다목적 교육관을 신축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속초여고에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놓았고 속초고 인조잔디구장에 관중석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

2016년 리우패럴림픽 육상 국가대표 총감독이기도 했던 그는 장애인 체육과 스포츠인권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강원도 장애인팀인 보치아팀과 육상팀 창단에도 힘을 썼다.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폭력을 막기 위해 강원도체육회에 스포츠인권팀과 같은 체육인 윤리인권센터 설치도 주장하고 있다.

속초 어민들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시설 지원 역시 그의 몫이다. 배가 안정적으로 정박 되도록 동명항에 방파



제를 높이고 청호동 일대에 어구 보수·보관함을 설치했다. 횃집이 많은 장사항과 동명항, 청호동 일대에는 너울성 파도로 훼손된 해수관로를 교체, 어항에 바닷물이 잘 공급되도록 했다. 장사동과 금호동에는 경로당을 새로 설치했다.

최근 가장 보람있는 일은 속초의료원에 분만시설을 설치하도록 성공적으로 협의한 것이다. 소아병동 설치를 추진하는가 하면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진 복지시설 설치와 임금 인상도 추진했다.

10대 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주 의원은 요즘 미시령 터널 강원도민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강원도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다.

“강원도민과 속초시민들이 사람 향기 풍기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스포츠를 하듯 다방면에서 도의원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발휘하는 주 의원의 발걸음이 힘차다.



신영재 의원
(미래통합당·홍천1)

생활정치 실현하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로

홍천소방서 신축, 재래시장 주차장 신축 등 지역현안 해결 지원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 홍천-춘천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 역점 추진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활용해 바이오센터, 대학 캠퍼스 유치해야

신영재 의원은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의 합리적인 진행과 알펜시아 매각의 투명성 제고, 제2경춘국도의 조속한 추진 등 도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앞장 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도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미덥지 않다 싶으면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덕분에 그는 지난해 말 강원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한 베스트도의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홍천 군의장까지 지낸 신영재 의원은 홍천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홍천 소방서 신축이다. 1992년 지어진 홍천소방서는 건물이 낡고 비좁은데 진출입로가 좋지 않아 신속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 의원은 홍천소방서 신축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지난 추경 심의 때 도에서 설계비를 따냈다.

홍천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족도 해결했다. 주차장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50억 원의 국비를 따내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짓기로 했다.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마을의 재산이며 마을 공동체의 구심이 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신 의원은 홍천의 여러 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홍천고 운동장의 조희대를 보수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화계초에는 전통놀이공간을 조성했다. 주봉초는 노후된 야외 학습장을 안전하고 보기 좋게 가꿔주었으며 오인초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짓도록 도와주었다. 홍천초의 교실과 주변 바닥을 정비해주는 등 자잘한 것이라도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요즘 관심이 많은 것은 홍천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이다. 올해 안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용문-홍천 간 철도 건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 의원과 홍천군의 숙원이다. 신 의원은 군 및 도 관계자는 물론 허필홍 홍천군수, 지역 국회의원인 유상범 의원과 지속적으로 숙의하며 서울에서 용문까지 온 철도 노선을 홍천까지 끌어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부터 홍천까지 철도가 들어온다면 홍천은 서울의



새로운 배후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홍천에 기차 여행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더불어 주민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홍천-춘천 국도5호선 포장사업 추진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최근에는 홍천에 위치한 강원인력개발원 활용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곳을 연구와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홍천군의 메디칼 의료산업과 연계할 수 있리라 기대하고 있다.

“강원인력개발원 부지에 K-바이오 중화항체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강원도립대학 홍천캠퍼스를 신설해 의료·바이오학과를 둔다면 산학연 협력이 가능한 미래산업지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작은 현안부터 미래 비전까지 두루 아우르는 신 의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난다.



김혁동 의원
(더불어민주당·태백2)

한번 잡은 손과 함께하는 믿음의 손

태백 교육시설 예산 122% 증액, 학교 간 통합·분리 작업 통해 교육의 질 개선
철암동에 광물자원특화단지 유치, 장성전통시장 개선, 폐광지를 머무는 관광지로
「전범기업 공공기관 구매제한 조례」 제정, 소녀의 상 건립 추진 활동

“교육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만큼 ‘가고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태백 교육시설 예산이 122% 증가한 235억 원을 확보한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김혁동 의원의 노력으로 함태중학교는 체육관과 체험 교육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실을 만들 수 있었다. 작은 학교라 홀대받던 동정초등학교는 건물을 도색하고 율타리와 운동장을 고치면서 지역주민들도 운동 장소로 이용하는 공동체 공간이 되었다.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직원 관사를 매입해 주거 조건을 개선했다.

최근에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간 통합과 분리 작업에 여념이 없다. 장성여중과 태백중 통합 추진은 지역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반대도 많았지만 교육의 미래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통합을 결정하고 50년 후를 바라보며 원격교육 시설 등 전문성과 안전성을 최대로 갖춘 학교를 짓기 위해 예산을 충분히 끌어왔지요. 2023년 9월 개교하려던 것을 입학 시기인 3월로 앞당기기도 했고요.”

태백지역 초등학교생의 절반이 집중된 황지초는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인근의 태서초를 중앙초에 흡수시키는 한편 별도로 태서초를 신설해 황지초에 밀집된 학생들을 나누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도심 인구에도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황지초가 명문으로 소문난 만큼 학교의 분리와 함께 교육환경을 개선해 우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화를 추진한 것도 보람있는 일이었다.

장성과 철암이 지역구인 그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철암동 고토실에 300억 원의 광물자원특화단지를 유치해 철암지역 재생의 단초를 마련했고 장성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곧 문을 닫는 장성광업소를 관광자원화해 철암에 있는 철암탄광역사촌과 이곳을 지나는 협객 열차 등과 연계해 머



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365안전체험관은 국가나 강원도가 운영함으로써 전방위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관리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가 도의원이 된 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이력답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깊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전범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 제한조례」를 제정해 반일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고, 태백시 평화의 소녀의 상 건립 집행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제막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자격도 갖고 있는 김 의원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물론 태백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싶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출마할 때 ‘손 잡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라며 얼굴을 알렸는데 지금은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란 믿음을 주며 태백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의원
(미래통합당·철원1)

농업도, 교육도 미래를 짓는 일

농산물 택배비 지원 조례 마련, 콤바인 구입비 지원 추진해 성공
수리시설 확충, 농산물 유통 위한 도로 확·포장도 역점 추진
교육위원장 선출돼 성실히 농사짓듯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설 요량

최재연 의원은 농민 출신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농사에만 전념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 하니 서른여섯에 새마을지도자가 되었고 서른아홉엔 이장이 됐다. 사람들을 그러모으며 일을 하는 그는 철원 농업계에서 알아주는 일꾼이 됐다. 주변의 권유로 마흔아홉에 철원농협 조합장에 나섰다. 당시 부실 경영으로 곧 청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농협을 1년 치 연봉까지 내놓으며 살려내곤 두 번 더 조합장을 맡았다.

도원이 되고 나서도 농민에게 도움 되는 일에 중점을 뒀다.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농산물을 직거래할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내 수도작 경지 면적의 30%인 1만ha가 철원에 있다. 그러다 보니 수확철에 콤바인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도 외에서 130여 대의 콤바인이 투입됐다. 외부로 유출되는 돈을 환산하면 30여 억 원이었다. 최의원은 외부로 나가는 돈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투자하자며 콤바인 보조 사업을 추진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1억 원 짜리 콤바인을 살 경우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호응은 대단했다.

철원에 농경지가 많으니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수다. 철원을 안양골 울리지구는 필요한 농업용수의 60%가 부족했다. 그는 요즘 한기호 국회의원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던 댐을 복원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을 제 때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포천 관인면으로 이어지는 동송읍 상노리와 이평리 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이평리와 철원읍 대마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성사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앞은 농경지와 붙어있는데다 좁은 비포장도로라 진출입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거기에 2차선 도로 신설을 성사시켰다.

철원의 명산인 금학산에 등산로 개설을 추진해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최 의원은 금학산으로부터



고석정, 노동당사, 제2땅굴, 삼부연폭포 등을 잇는 관광코스를 만들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다.

최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다방면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그의 성실함이 의회에서 빛난 결과다. 농업과 다른 분야이지만 미래의 씨앗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원들과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농사는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둡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른들이 성의를 다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지원해주면 강원도 아이들이 좀 더 큰 인재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교육도, 농업도 그런 신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논에서, 의회에서 미래를 짓는 최 의원의 미소가 맑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임기가 2020년 10월 9일 종료됨에 따라 임명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다.

7월 6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제294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더불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도의회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7월 9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번안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 번안 동의의 건은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하여 전 의장단의 의석을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다.

☑ 주요처리 안건

-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 제2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규호



현안사업의 성과분석 주문,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당부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부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의석 배정을 결정하였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국 및 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총무행정관 업무보고에서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도민정책추진단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폐합 등 전략적 수정을 주문하였다.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분석하고, 매각방법 등 적절한 계획 수립과 동시에 신임사장의 리더십을 당부하였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성과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타 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 제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강원도립대학교에는 지역산업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학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유망 학과로의 개편을 주문하였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향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장덕수



도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설립 출연 동의

사회문화위원회는 7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정수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정수진 의원은 “사회문화위원회가 도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원회인 만큼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소관 실국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재)강원도 관광재단과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과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조항이 담긴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강원도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농어업인 수당 조속한 시행 권고

농림수산위원회는 7월 6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했다. 7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2020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사하였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 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외지 근해자망 어선으로부터 우리 도의 수산자원인 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인 제한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의 조속한 시행을 권고하고 토종별 보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를 당부하였다. 농업기술원에는 농가대상 병해충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안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녹색국에는 도립 산림휴양시설의 활성화, 산불 예방 및 일자리 창출 차원의 산림 숲 가꾸기 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였다. 환동해본부에는 내수면 생태환경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 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원



주민 이동 편의성 높이도록 마을버스 운영 당부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10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조성호 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의석 배정을 결정하였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손쉬운 이동을 위해 마을버스로 소형차량 등을 도입하고자 발의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와 관련 “차량도입 시 충분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재연



2분기부터 고1도 수업료 면제, 전면 무상교육

교육위원회는 7월 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김준섭 의원이 제안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이 조례안을 통해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7월 7일부터는 2020년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7월 14일에는 제6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강원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통해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방송통신고 포함) 1학년의 2분기부터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강원도는 이제 초·중·고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하게 되었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20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철원의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최재연 의원

(교육위원회·철원1)



- 철원군은 2019년도 기준 도내 경지 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이 101.7%로, 도내 전체 평균인 44.4%에 비해 배 이상 높아 과도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의 92.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규제를 받아오고 있음.
- 2016년부터 매년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고 있지만, 농지법상 여건 변화로 인한 잔여면적이 3ha 이하, 골짜기 폭이 100m 이하인 곳만 해제 검토 대상으로, 한 지점이라도 골짜기 폭이 100m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면적에 농로와 수로 등 경작할 수 없는 땅이 포함되어 해제요건 충족이 어려움.
- 이는 향후 농업뿐만 아닌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의 6차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통한 2, 3차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철원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① 철원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을 주택 등 전용된 구역에 대하여는 해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 ②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함.



군 전투기 소음 관련

한창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횡성1)



- 강원도에는 13개 시군에 군용비행장 7곳, 사격장 33곳 등 총 40개의 군 전투 관련 시설이 있으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방해받고 있음.
-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적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함.

- ①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여 주기 바람.
- ② 소음대책 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조항 완화 및 사유재산권을 보장 바람.
- ③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대책 지역에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 바람.
- ④ 소음 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⑤ 보상금에 대한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해 주기 바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춘천 전투에 대하여

남상규 의원

(교육위원회·춘천4)



- 춘천대첩은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지구 전투와 함께 국방부가 지정한 6.25전쟁 3대 전승 중 하나이며 춘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첫 승리를 거둔 유일무이한 전투지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
-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랑스러운 춘천시민들의 기개가 이제라도 올바르게 재조명 되어야 함.

- ① 춘천대첩의 역사적인 안보자산과 호국 가치는 학술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유적지는 보존되고 개발되어 교육적 사료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함.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춘천대첩을 재조명하고 춘천대첩박물관 건립 및 체계적인 기획사업을 추진해야 함.
- ② 춘천대첩을 영화화한다면 춘천대첩의 의미와 당시의 긴박했던 위기상황과 춘천시민들의 애환심은 전국민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음.
- ③ 춘천시내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전적지 관광투어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강원도 아동보호체계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김형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동해2)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강원도 아동학대 사례 또한 총 1,451건으로 5년 전 대비 약 2.3배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을 상회.
- 강원도는 면적도 넓고 지리적 이동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소에 불과하여 기관당 평균 4~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이 평균 64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과중 때문에 아동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음.
- 정부는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올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고 학대신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에 따라 도에서도 충분히 훈련하는 과정과 대응 필요.

- ① 강원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빠른 시일 내 추가 설치를 제안함.
- ②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이 보다 많이 배치되어야 함.
- ③ 아동보호체계 재편에 따른 현장조사 공공화준비를 도와 시군단위에서 업무의 공백없이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채용 및 교육훈련과정에서 도청과 시·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지원이 필요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하여

이병헌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원주2)



- 세계 SPA 브랜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ZARA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예측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있으며, 국내 주요 카드업체들도 소비자 행동패턴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강원도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전문가가 부족하며,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굼직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성과도 내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기업과 대학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플랫폼을 갖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도 담당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에서도 전문가와의 소통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닌 근근한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서 간의 칸막이도 보임.

- ① 이에 따라 체계적이며 조화로운 변화를 요청하며, 조직과 업무 분장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의 세심한 검토와 진단을 바람.
- ② 기업이나 대학이 제안하는 플랫폼에 대한 검증과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강원도에 특화된 정책 발굴 등 강원도 빅데이터 산업을 지원할 전담 기관도 필요함.
- ③ 강원도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 범위의 폭을 넓혀야 하며 그 바탕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책도 강구되어야 함.
- ④ 데이터 전문가, 과학자는 전공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창의적인 수학교육, 학제간 융합 및 교육으로 젊은 전문가 육성 필요.

5분 자유발언 그 후...



5분 자유발언이란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본회의에서 정당하게 발언하는 기회입니다.

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발언만 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하여 추진 상황을 밝혀야 합니다.

발언한 도원에게도 설명해야 하며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angwon.kr/>)를 통해 추진 내용 및 향후계획 등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없는 도원의 주장이나 소견이었다면 '본회의 종결'로 표기되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라면 '계속추진'에 체크가 됩니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라면 '임기종료(종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은 '처리종료'에 체크됩니다.

[편집자註] <강원의정>은 강원도의회 의원 구성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6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도정이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 감시

● 매년 1회 도 집행부의 모든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 진행된다. 도의회는 매년 1회, 제2차 정례회 때 도와 도 교육청의 사무에 대해 14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도의회는 감사를 통해 도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도의회는 감사를 통해 도의 행정이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감시한다. 이와 함께 의안 심사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의 대상사무는 도와 도교육청의 고유 사무와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국가 위임 사무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의 시기가 결정되면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기관에 감사계획서를 송달하는 등 감사를 준비한다. 면밀한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도의원들은 사전에 전달받은 도정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실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며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장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감사결과도 도 등 감사대상기관에 이송된다. 이후 감사대상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살필 필요있는 특정사안에 대해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의회는 감사대상기관에 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조사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정기적으로 도 집행부의 모든 행정 처리를 감사하는 것이라면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조사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조사 안전에 대한 발의와 승인 절차만 다르지 실질적인 조사 절차는 감사 절차와 같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준섭 의원 외 5명

Q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 같은 교육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교육적 피해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난 등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급식 및 대면수업 등 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상황을 말합니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언제 얼마나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효동 의원 외 4명

Q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배출가스가 많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행 제한 및 제외 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A 도지사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자동차 운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영업용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교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는 운행제한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외 대상 자동차는 증명이 가능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어요.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조성호 의원 외 1명

Q 지난 290회 임시회 때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을까요?

A 디지털 성범죄는 경악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불분명하여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새로 조항을 신설해 ‘도지사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유포협박·유통·공유·사진합성·전시하

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종주 의원

Q 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복 지원금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A 맞습니다. 우선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복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대리점마다 교복 가격의 차이가 커서 불만인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교육 구매 평균가격을 매기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 부분을 삭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고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 등 1학년이라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준섭 의원 외 2명

Q 교육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나 오지 근무가 많아 주거여건이 좋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교육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비연고지 근무기간 및 횟수가 많아요. 하지만 추가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도 크고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도교육감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마다 관사를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 여건이 안정돼야 공무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요.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강원도지사

Q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정류소는 어디이고 어떤 차량을 마을버스로 운행할 수 있나요?

A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소 이내 설치해야 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이미 설치된 버스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차량은 16인승 이상에서 11인승 이상의 소형 승합차로 조정되었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정류장이 달라 헛갈리거나 버스 출입구가 높아 불편해했던 어른신들이 마을버스를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강원도교육감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도 못 가는데 고등학생의 수업료를 내야 할까요?

A 안 내도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등학교 2학년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면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 2분기부터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즉 공·사립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다 면제됩니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톡톡! 생활도우미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11.2% 인하되어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은 12.7% 인하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23만 원 내고 있었다면 20만 원 내게 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되어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용은 사용 패턴(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인상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써, 최근 유가 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 요인(2.6%p) 및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 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이란 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융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

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후백제-태봉 역사벨트 구축 시급히 추진해야

김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4)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 세미나 발표문에서 제안한 후삼국진흥법과 같은 법안 마련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칭' 후삼국 시대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집중적 투자와 지원이 가능한 장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고대 전주의 후백제 왕궁 유적과 철원의 태봉도성 유적의 비교 연구를 통한 고대 도성 공동연구, 지역 유적에 대한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강호 축 역사벨트의 선제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연계 고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의 범위도 지역적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사업과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강원도 철원은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의 영예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서 도와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유적, 문화를 발굴, 연구해야 하며 도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후백제의 땅인 전북과 연대하여 강호 축 역사 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강호 축은 그 동안 국토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여 발전시키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이제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역사·문화 등의 교류 협력을 통해 미래 가치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지역 간의 역사·문화적 교류를 통한 접합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4월 24일 전북연구원에서 열린 '후삼국 시대 태봉-후백제 역사벨트 구축 학술세미나'는 더욱 의미가 있다.

전주와 철원은 후백제와 태봉의 고도(古都)로서 신라 천년의 고도라 불리는 경주에 비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궁예와 견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후삼국 시대는 엄연히 존재하여 한국사의 명맥을 이어 온 역사적 시기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후삼국 시대의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를 발굴하는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인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원도성에 대한 연구는 철원군의 노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아젠다(agenda, 의제)로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점에 왔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정 연찬회

평화지역 방문, 현안 살피고 주민 의견 청취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기획행정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구군에서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의정 연찬회를 열었다.

이번 의정 연찬회는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등을 논의하고 후반기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평화지역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피는 한편 현안사업장을 확인하며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 방향을 논의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구에 위치한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장 1개소,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사업장 1개소,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장 1개소, 군장병 휴식공간 (열린문화쉼터) 조성 사업장 1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또 평화지역 사업이 주민에게 주는 영향이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규호 기획행정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살림이 어려운 평화지역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평화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장덕수 사회문화위원장은 “이번 현지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일상 속으로 찾아가고 체감하는 문화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7월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양양에서 의정 연찬회를 열고 10대 도의회 하반기 농림수산물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현지 시찰을 진행했다.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농업 생산 확대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수산물 분야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다.

7월 16일에는 양양 매호에 관찰시설, 데크 등을 설치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인구향과 죽도해변을 시찰했다. 인구향과 죽도 해변 등 양양에는 전국 서퍼 45만 명 중 45%가 방문해 30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물위원회는 인구향 등을 시찰하면서 해양관광 및 서핑산업의 발전과제 등을 토의하였다.

또 2019년 개소한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가공시설과 가공장비 등을 살펴본 후 애로점을 듣고 추가 지원사항을 점검하였다.

김정중 농림수산물위원장은 “연찬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강원도 농업과 수산업, 해양관광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물위원회 의정 연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 관광 발전방안 모색



사회문화위원회 의정 연찬회

소외된 문화예술인 의견 청취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장덕수)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제10대 강원도의회 하반기 사회문화위원회 구성에 따른 하반기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업무연찬을 진행했다.

지역밀착 현지 의정활동을 겸하여 실시한 이번 연찬회는 지역사회에서 부상하는 역사·문화의 현장을 방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의 간담을 통해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격려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룩한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축하하고 지역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군 관계자와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정 연찬회

낙후된 동해 살피며 도 발전 방안 모색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원)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동해, 삼척 일원에서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찬회를 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현안 사업장을 시찰했다.

경제건설위원들은 금년 8월 중 준공을 앞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단지 공사 현장과 동쪽바다중앙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어 동쪽바다중앙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어 어려움을 청취하였고 동해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한 의약외품 및 위생용품 제조·수출 기업인 ‘엠뷰글로벌’을 방문해 기업의 고충을 들었다.

또한 하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형원 경제건설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이 이어지는 있는 만큼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대 도의회 후보기 윤리특위 구성

●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금석)는 7월 15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자격 등의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6월 2일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결의되었다.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0명이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8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명순)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의화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을 청취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엄정하게 진행했다.

신명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 성과를 통해 강원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아왔으며 국정과제와 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관은 물론 경영·정책수행·조직관리 능력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7월 13일에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했으며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은 14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적격 판정





정선아라리촌과
정암사수마노탑

사람과 삶의 역사를 되짚는 시간 여행지

“

정선아리랑은 정선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콘텐츠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아리랑이라는 문학적 소재를 살려 정선군은 다양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라리촌과 아리랑시장이다. 최근에는 폐광지인 고한이 떠오른다. 광산의 역사를 간직한 삼탄아트마인이 문을 열었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됐다. 함백산 만항재는 꽃으로 가득하다.

”



장덕수 (정선1)의원

아라리촌

아라리촌은 조선시대 정선의 주거문화를 재현해 ‘정선의 민속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2004년 정선읍 애산리 1만 평 부지에 조성되었어요. 기와집부터 너와집, 저릅집, 돌집, 귀틀집, 굴피집 등 열 종류의 전통가옥과 주막, 저잣거리 등이 소담스럽게 어우러져 옛 정취를 뽐내고 있지요. 물레방아와 통방아, 연자방아도 볼 수 있고 서낭당과 방앗간도 있어서 조선시대 작은 마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농기구를 모아놓은 작은 공방도 있어서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실학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가 지은 <양반전>은 조선 후기 양반 문서를 매매하던, 책을 대로 써온 양반사회를 풍자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정선입니다. 그래서 아라리촌에는 <양반전>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조형물이 재미있게 조성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읽고 보다 보면 한 편의 해학 드라마인 <양반전>을 다 읽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아라리촌을 한 바퀴 휘돌아 구경하는 길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

에 옛집과 비석, 방아와 장승 등 아담하게 이어진 옛날 풍경이 마음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10월 10일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더욱 풍성한 구경거리와 놀거리를 선물하지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라리촌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말놀이마당 ‘오락가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룻배 체험과 혼례 체험, 전통민속놀이,

양반증서 써주기, 정선아리랑 배우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오전 11시30분에는 아리랑 공연이, 오후 1시30분에는 양반전 공연이 열리니 꼭 참여하세요. 아라리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정선아리랑시장이 있어요.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열리고 이때도 시장에서 아리랑 공연이 펼쳐지니 장날에 오시면 더 흥겹습니다. 시장에서 병방치 스카이워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정선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빼놓지 마세요!

정선하면
아리랑!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얼마전 정선 고한에서 경사가 났어요. 고한읍 태백산자락에 자리한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었거든요.

정암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가 643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장율사는 꿈에서 문수보살이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하기에 그곳을 찾다가 구렁이가 파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갈반지라 이르며 석남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석남원이 정암사가 되었습니다. 정암사는 오대산 월정사의 말사인데요. 월정사에도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에 얽힌 설화가 많듯이 이 절에도 문수보살과 자장율사에 얽힌 재미있는 설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수마노탑도 그렇지요.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를 들고 귀국했고 정암사를 지었는데 적멸보궁에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그 위쪽으로 수마노탑을 세웠습니다.

마노는 금, 은과 함께 아홉가지 보석으로 꼽혀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해용왕이 준 마노석으로 탑을 만들었고 물길을 따라 온 마노로 지었다고 해 물 수(水)자를 따서 수마노탑이라고 이름지은 거랍니다. 하지만 설화와 달리 모전석탑의 창건 방식 등을 살폈을 때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대지요.

국보가 된 수마노탑을 둘러보러 오기 전엔 삼탄아트마인에 꼭 들르세요. 삼탄아트마인은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해오다 2001년 폐광된 삼척탄좌시설을 문화예술단지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150개 국에서 수집한 10만 점이 넘는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또 광부의 삶과 광산노동의 고로함이 고스란히 전시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양의 후예’ 등 영화와 드라마 촬영도 많이 되어 볼거리도 풍성하답니다.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니 보고 듣고 즐기는 여행지로 충분하답니다. 삼탄아트마인과 정암사를 다 구경하고 나선 꽃을 즐기러 떠날까요? 정암사에서 차로 7분 정도 올라가면 만항재입니다. 해발 1,330m의 만항재에는 울긋불긋 야생화가 그득해 야생화천국이라고 불려요. 이곳은 고한읍 고한1리인데 이 마을을 야생화마을이라고도 하지요. 문화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 정선으로 오세요.



나일주 (정선2)의원



철원직탕폭포와 삼부연폭포

용암의 숨소리 거칠게 감춘 한탄강 절경

한탄강은 용암이 지나간 자리를 감추고 있다. 현무암으로 된 용암지대를 관류하는 한탄강 주변에는 수직 절벽과 협곡이 기이하게 펼쳐져 있다. 용암이 계속 흘러내리며 굳어진 주상절리 위로 한탄강은 거칠게 흘러 직탕폭포를 만들어냈다. 이 물줄기는 임꺽정이 머물렀던 고석정을 지난다. 고석정에서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를 따라 올라가면 삼부연 폭포가 고혹적인 자태로 기다리고 있다.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 승리전망대에 이르면 북쪽에서 흘러오는 한탄강을 다시 만난다.

직탕폭포

직탕폭포는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불려요. 물론 높이는 3~5m로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폭은 한탄강 양안 80m에 걸쳐져 있어요. 그 거대한 암반을 넘어 수직으로 거센 물살이 쏟아져내리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폭포 아래의 암반은 54만 년 전에서 12만 년 사이로 추정되니 세월의 신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랍니다.

이 폭포는 용암이 겹겹이 식어 굳어진 현무암 위로 오랫동안 물이 흐르고 풍화와 침식 작용이 겹치며 현무암의 주상절리를 따라 지반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계단 모양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다른 폭포와 달리 하천면을 따라 넓게 펼쳐진 폭포라 모양새가 신기하고 시원스러워 더욱 인기가 많아요. 철원8경에도 포함되었지요.

직탕폭포 옆으로는 돌다리가 있어요. 본래 콘크리트 다리가 있었는데 최근 그것을 철거하고 현무암으로 돌다리를 놓아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돌다리를 건너서 바라보면 폭포 옆으로도 현무암이 수직으로 떨어져나간 주상절리를 만날 수 있지요. 한탄강에 물이 적을 때는 직탕폭포의 주상절리가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 웅장한 자연의 기이함을 뽐내기도 합니다.

직탕폭포를 지나서 한탄강을 따라 조금만 가면 고석정입니다. 고석정은 한탄강 한복판에 10여 m의 높이로 치솟은 거대한 바위인 고석 주변을 말합니다. 이 바위 뒤로 신라 진평왕 때 축조된 정자가 있고 그 주변을 모두 통틀어 고석정이라고 불려왔지요. 직탕폭포로부터 흘러오는 한탄강 줄기는 깊지 않지만 고석정 주변에서는 깊고 푸른 강물을 선사해 더욱 아름다운 물의 춤을 관전할 수 있습니다.

고석정에는 조선시대 의적으로 불린 임꺽정이 기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옵니다. 그래서 고석정에 들어가기 전 관광지 입구에는 임꺽정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고요. 여름에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부연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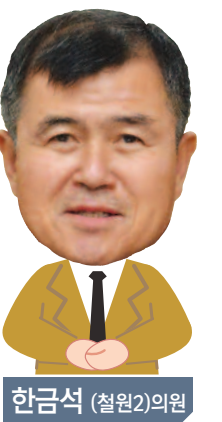
고석정에서 차로 10분쯤 달리면 삼부연폭포입니다. 삼부연 폭포는 명성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요.

먼저 명성산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명성산은 역사로 유명해요. 바람에 역새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와 같아서 그것을 한자로 명성산이라 했을 법한데 여러 설화도 전해지고 있지요.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서럽게 울었다고 하고, 궁예가 왕건에게 쫓기다 통곡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답니다. 궁예가 이 산에서 피살되었다고도 하지요.

삼부연폭포는 이 명성산 중턱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에 위치한 20m 높이의 폭포입니다. 높은 절벽에서 세 번 꺾여 떨어지면서 노구탕, 솔탕, 가마탕 등 세 개의 구덩이를 만들어냈다 하여 삼부연이라 불립니다. 궁예가 철원에 태봉국을 세울 때 이곳에 살던 이무기가 폭포의 바위를 뚫고 용으로 승천하면서 바위 구덩이 세 개가 생겼다는 전설이 전해진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데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며 고즈넉한 호수를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촬영돼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아름다운 폭포를 구경했다면 접경지역인 철원에서 북녘 땅을 보는 기회도 잡아야겠지요? 삼부연폭포에서 북동쪽으로 35분 정도 가면 승리전망대가 나타납니다.

승리전망대는 휴전선 155마일 중 정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북녘 땅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지요. 망원경을 통해서 경원선 철도와 광심 평야, 아침리 마을은 물론 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무장지대의 평화로운 순간 사이를 흐르는 한탄강과 북쪽 오성산의 수려한 풍광도 눈에 들어오지요. 해설사의 시원한 해설을 들으면서 북녘 땅을 둘러보는 감동적인 시간을 이곳에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단 승리전망대 입장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관람 정보를 찾아보고 오세요.



한금석 (철원2)의원

폭포 아래
세월의 신비



최재연 (철원1)의원



2020년 월별 회기운영 일정

월 별	회 기	예 상 안 건	비 고
계	140일 이내	(정례회 56, 임시회 74, 예비회기 10)	회 기
2월	제287회 임시회 2.11 ~ 2.20 (10일간)	■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3월	제288회 임시회 3.17 ~ 3.20 (4일간)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등	3.1 삼일절
	제289회 임시회 3.24 ~ 3.27 (4일간)	■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23~4.1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4월	제290회 임시회 4.21 ~ 4.29 (9일간)	■ 제1차 도정질문 실시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4.15 국회의원선거
5월	제291회 임시회 5.6 ~ 5.19 (14일간)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5.5 어린이날
6월	제292회 정례회 6.2 ~ 6.18 (17일간)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 제2차 도정질문 실시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6.6 현충일
7월	제293회 임시회 7.3 ~ 7.15 (13일간)	■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7.8 도민의 날 행사
9월	제294회 임시회 9.2 ~ 9.11(10일간)	■ 도의회 개원 64주년 기념행사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56.9.6 제1회 도의회
10월	제295회 임시회 10.13 ~ 10.22 (10일간)	■ 제3차 도정질문 실시 ■ 어린이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10.1 추석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1월·12월	제296회 정례회 11.3 ~ 12.11 (39일간)	■ 행정사무감사 실시 (업무보고 병행) ■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필요시	예비회기 (10일간)	■ 긴급 임시회 소집 또는 기존회기 연장 운영	

제294회 임시회 9.2~9.11(10일)

2020 September

9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

코로나19로 달라진 휴가,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자

꼭 지켜주3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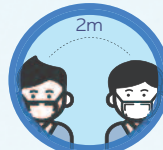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으로 머무르기

* 식당·카페에서는 음식물 섭취 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 휴게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간 거리는 2m(최소1m) 이상 유지하기

꼭 피해주3 수칙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집에 머무르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는 피하기

* 해수욕장 이용시 '해수욕장 신호등' 활용하여 혼잡도 확인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GANGWON FOOTBALL CLUB 2020 MATCH SCHEDULE

K LEAGUE 1



1R	05.10 (일)	서울	16:30	춘천송암
2R	05.16 (토)	상주	14:00	상주시민
3R	05.23 (토)	성남	16:30	강릉종합
4R	05.30 (토)	전북	16:30	강릉종합
5R	06.05 (금)	인천	19:30	인천전용
6R	06.13 (토)	수원	19:00	수원월드컵
7R	06.16 (화)	울산	19:00	강릉종합
8R	06.20 (토)	포항	19:00	스틸아드
9R	06.27 (토)	대구	20:00	DGB파크
10R	07.04 (토)	부산	19:00	강릉종합
11R	07.12 (일)	광주	19:00	강릉종합
12R	07.19 (일)	울산	19:00	울산문수
13R	07.25 (토)	성남	19:00	탄천종합
14R	08.02 (일)	상주	19:00	강릉종합
15R	08.07 (금)	서울	20:00	서울월드컵
16R	08.16 (일)	광주	19:00	광주월드컵
17R	08.21 (금)	대구	19:00	강릉종합
18R	08.30 (일)	전북	19:00	전주월드컵
19R	09.12 (토)	포항	16:30	춘천송암
20R	09.19 (토)	수원	16:30	춘천송암
21R	09.27 (일)	부산	16:30	구덕운동장
22R	10.04 (일)	인천	15:00	춘천송암

궁금하면?

우리가 뽑은 강원도의회 의원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제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나보세요.



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http://livecouncil.gwd.go.kr/>)에 접속하세요.
강원도의회 본회의, 6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강원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angwon.kr/>) 하단 왼쪽
'인터넷방송' 클릭 또는 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http://livecouncil.gwd.go.kr/>)에 접속
- 의정 중계 전용 채널 8개
- HD급 고화질 인터넷방송

※ 지난 회기는 LG헬로 강원방송을 통해 녹화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